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연구

A Study of Literatures Cited in *Ch'onga-gugüppan'*

박수진(Park, Su-Jin)*
김순희(Kim, Soon-Hee)**

◁ 목 차 ▷

1. 緒論	3.1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2. 思齋 金正國과 「村家救急方」	3.2 「東醫寶鑑」과의 인용문헌 비교
2.1 思齋 金正國	
2.2 「村家救急方」의 편찬배경	4. 結論
3. 인용문헌 분석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조선중기 구급의서인 「村家救急方」에 대한 고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村家救急方 의 저자인 조선중기 문신 金正國의 생애와 사상, 村家救急方 의 편찬배경을 통하여 촌가구급방 이 조선 중기 민간 의서로서의 의의와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村家救急方」의 병증에 따른 인용문헌을 살펴 본 후, 조선중기의 대표적 전문의서인 「東醫寶鑑」의 인용문헌과 비교하여 村家救急方 이 갖는 민간의서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要語: 思齋, 金正國, 村家救急方, 民間醫書

* 한국한의학연구소 연구원(qkrtrjs@hanmail.net)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09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4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Ch'onga-gugŭppang*, a medical book for the public, written in the mid-Joseon Dynasty. In this study, the life and thought of Kim Jeong-guk who was a civil minister and an author of *Ch'onga-gugŭppang*, and the background of writing this book are examined.

Also, the literature cited in *Ch'onga-gugŭppang*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ymptoms and compared with the literature cited in *Dongui-bogam* which was a representative specialized medical book in the mid-Joseon Dynasty to document the value of *Ch'onga-gugŭppang* as a medical book for the public.

Key words: Kim Jeong-guk, *Ch'onga-gugŭppang*, Civil medical book

1. 緒 論

조선 사회는 전란과 기근의 고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생산력의 제고와 함께 의술과 의료 혜택의 확산이 필요하였다. 이미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신진 사대부들은 향촌 사회에서의 醫藥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 후기부터 鄉藥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려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鄉藥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과 이론의 정리는 세종대의 「鄉藥集成方」⁸⁵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조선의학은 금원의학을 수입하여, 가능한 한 모든 금원의학의 처방을 집적하여 기록한 「醫方類聚」을 편찬하였다. 「醫方類聚」은 세종 26년(1444) 365권으로 편찬하였고, 그 후 성종 8년(1477)에 재정비되어 266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은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종합의서이지만, 내용이나 구성이 매우 방대하여 민간에서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민간에서는 의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처방의 대부분은 唐藥을 사용하였기에 값이 비싼 唐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러하기에 그때 그때의 임상에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이에 金正國(1485~1541)은 己卯士禍로 파직되어 고양군 망동에 거주하면서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方書들을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와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효험있는 처방들을 모아 「村家救急方」 1책을 편찬하였다.

「村家救急方」은 鄉村에서 흔히 발생하는 132여종의 질환을 鄉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鄉藥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治方을 제시한 救急醫書로서 鄉村民의 질병치료에 이용되는 단순한 治療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固有의 治法이 제시되어 있기에 가치가 크다.¹⁾

이 연구에서는 「村家救急方」의 저자인 思齋 金正國에 대한 생애 및 사상을 알아보고 「村家救急方」의 편찬배경을 고찰하였다. 「村家救急方」은 현재 三木榮 소장본, 성암문고본, 한독의약박물관본, 홍재휴 소장본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1) 李魯國, “朝鮮時代 救急醫書의 書誌的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22 (1995), 311.

三木榮 소장본²⁾과 초간본으로 알려져 있는 한독의약박물관의 소장본³⁾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을 분석한 후 「東醫寶鑑」의 인용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村家救急方」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였다.

2. 思齋 金正國과 「村家救急方」

본 장에서는 「村家救急方」의 저자인 思齋 金正國의 생애 및 사상에 대해 알아 보고, 이와 함께 「村家救急方」의 편찬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2.1 思齋 金正國

金正國(1485~1541)의 字는 國弼이고, 號는 思齋 또는 八餘居士이며 본관은 義城이다.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과직 후 고양군 망동에 거주할 때 8가지 덕덕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八餘居士’라 자칭하였다. 여기서 金正國이 말하는 ‘八餘’란 경제적인 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토란국과 보리밥, 부들자리, 맑은 샘물, 서가의 책, 달빛, 솔바람 소리, 서리 맞은 국화와 같은 것과 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金正國은 여유와 청빈을 즐기면서도 삶의 품위를 지켜가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 인물이다.

金正國은 父인 金璉과 母인 양천 허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서 관직에 나아간 士族 집안으로, 高祖인 金好知는 咸興少尹을 지냈고 曾祖인 金統은 예조정랑을 지냈으며 祖인 金益齡은 성천부사를 지냈으며 父인 金璉은 예빈시참봉을 지냈다. 특히 그의 兄인 金安國(1478-1543)은 中宗朝의 정치와 학문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며, 시호는 文敬이다. 그의 형인 金安國은 성리학의 실천· 보급에 주력하여 각 고을의 鄉校에 「小學」

2)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영인본을 대상으로 함.

3) 김신근, 「韓醫藥書考」(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39-140.

을 보급하고, 「농서언해」·「잠서언해」·「이륜행실도언해」·「여씨향약언해」·「정속언해」 등의 언해서와 「벽운방」·「창진방」 등의 醫書를 널리 간행하여 향촌민들의 교화사업에 힘쓰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母인 양천 허씨는 군수 許芝의 딸로서, 外祖인 허지는 영월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외종 중 허반은 성종대 사림계 인물로 김종직의 문인으로 연산4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승문원정자에 재직한 인물이다. 許浚(1539-1615)은 金正國의 5촌 堂姪로서 「東醫寶鑑」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허준의 의술에 대한 감각과 의학에 대한 통찰력은 5촌 堂叔인 金安國과 金正國 형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⁴⁾

이렇듯 士族 집안에서 태어난 金正國은 그의 나이 10세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이모부인 趙有亨에 의해 양육되며, 중종 2년(1507) 생원시와 진사시의 兩試에 오르고 1509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홍문관부수찬, 승문원교검을 거쳐 홍문관수찬으로 지제교를 겸하였으며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다. 1510년 이조좌랑으로 선임되어 문관의 의사행정을 담당하고 1512년 홍문관부교리로 옮겼다가 이듬해 교리로 승진한다. 곧이어 사간원헌납에 임명되고, 1514년 사가독서를 하였다. 그해 이조, 공조, 호조의 정랑을 거쳐 승문원교리로 전작되었다가 1515년 다시 이조정랑에 선임되었다. 1516년 의정부검사를 거쳐 이듬해 의정부사인으로 승진하고 사간원간, 군기시부정, 성균관사성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518년 직제학에 제수되었다가 그해 승정원동부승지로 승진하여 왕명을 출납하였다.

金正國이 관직에 진출해 활동한 시기는 中宗이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격동과 변혁의 시기로, 中宗은 자신을 즉위시킨 공신세력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의 통치 질서를 복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다. 이와 함께 공신세력과 현실인식 방향이나 대응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세력들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였다. 격변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추구하려던 中宗은 南袞·洪景舟 등의 훈구세력이

4) 이선아, “양평군 허준의 인맥,” 「허준박물관 개관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7), 6-7.

趙光祖 등의 신진세력을 축출한 결과적으로 보다 증폭된 격변을 초래하는 己卯土禍를 일으켰다. 후에 金正國은 조광조 등 사림과 학자들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려 조광조 등의 사림과를 옹호한다는 죄목으로 형인 金安國과 함께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 후 고양군 망동으로 내려가 스스로 “팔여거사”라 칭하며, 중종 32년에 재임용되기 전까지 망동에 거주하면서 학문을 닦고 저술과 후진 교육에 전심하였다. 향약과 향교교육 등 향촌 교화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시골 백성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방문을 수집하여 구급방서인 「村家救急方」을 저술하였다.

중종 32년(1537) 관직에 복귀되어 이듬해 용양위대호군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 중 수십조에 달하는 便民去弊의 정책을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고양군 망동에 거주 할 때 저술한 「村家救急方」 1권1책을 간행하였다.

이외에도 金正國은 의학뿐만 아니라 성리학과 역사 등에도 밝았으며 문인으로서는 「天命圖說」을 저술한 鄭之雲 등이 있다. 또한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좌찬성에 추증되어 장단의 臨江書院, 용강의 鰲山書院, 고양의 文峰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村家救急方」 이외에 「性理大全節要」, 「思齋集」, 「歷代授受承統立圖」, 「己卯勳籍」, 「警民編」 등이 있다.⁵⁾

2.2 「村家救急方」의 편찬배경

「村家救急方」은 中宗 33년(1538) 6월에 金正國이 撰한 것으로 窮村民들의 疾病治療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方書 中 民間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藥材와 父老들의 聞見에서 효험이 있는 것을 채집하여 一卷으로 편찬하였다.⁶⁾

5) 다음의 문헌을 통해 정리함.

尹甲植, 「朝鮮名人典」(서울: 文豪社), 99-1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서울: 중앙 M&B), 437.

李秉然, “思齋 金正國의 改革論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第23·24輯(1999).

6) 李魯國, “朝鮮時代 救急醫書의 書誌的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22 (1995),

金正國은 중종 33년(1538) 전라도 관찰사에 재임 시 「村家救急方」을 간행하였지만, 편찬은 이보다 앞선 중종 14년(1519) 己卯土禍로 파직되어 고양군에서 지낼 때 향촌의 실태, 향촌민의 질곡과 그 구폐책 등에 관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方書 中 민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藥材와 父老들의 자문을 통해 효험이 있는 것을 수집하여 엮은 것이다.

중종 13년(1518) 金正國이 황해도 관찰사에 재임 시 文化縣의 邑治를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황해도 지역에 유행한 역질이 縣의 邑治를 옮겨야 할 정도로 향촌내부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로 인해 金正國은 향촌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의 형인 金安國의 문집인 「慕齋集」, <文化縣移治記>에 기록되어 있다. 「慕齋集」, <文化縣移治記>7)에 의하면 중종 16년(1521)에 작성된 이 기록은 비록 역질의 유행은 잠시 멈췄지만, 元氣를 길러 병이 생기는 것을 막도록 당부하고 있었다. 金正國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촌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서 편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후 「村家救急方」을 편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村家救急方」 서문을 통해서도 「村家救急方」의 편찬배경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醫方의 저작들이 책상에 쌓이고 상자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것은 다 사람들을 위해 질병을 제거하고 橫死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훌륭한 의사가 아무리 널리 醫方書를 참고하더라도 결국은 만에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죄를 짓고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醫方과 藥書들을 많이 구해 가지고 있었다. 어찌다가 환자가 나를 찾아와 묻는 일이 있으면 어떤 病證인지 확인하고 方書를 뒤져서 맞는 약을 찾곤 했는데, 약과 병이 서로 맞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환자에게 처방을 알려줄 즈음에 생각하여 보니 무슨 湯이라 하고 무슨 散이라 하고 무슨 元이라 하고 무슨 丹이라 한 것들은 醫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책을 덮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庖丁의 손에 칼이 없다면 몽둥이로 때려

310-311.

7) 金安國, 「慕齋集」 卷 11, 文化縣移治記.

죽이는 것만 같지 못하고 養由의 손에 활이 없다면 단도를 쥐고 붙어서 싸우는 것만 같지 못하듯이,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方書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 「村家救急方」이라고 했다.

이 책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시골에서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에, 병든 사람이 있어 약을 주어 보면 시장과 마을의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약재를 찾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었고 자못 모두 효험이 있어 치료된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그러나 이 책이 민간에 널리 유포되지 못하는 점이 염려스러웠다. 나는 무술년 봄에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고, 같은 해 여름에 호남관찰사의 명을 받들어 호남으로 들어갔는데, 이틀 밤을 묵고 남원에 이르러 맨 먼저 이 책을 通判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널리 유포시키게 하였다.⁸⁾

위의 「村家救急方」의 서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대부분의 醫書는 중국의 醫書를 인용하여 약방과 처방전의 약재는 값이 비싸거나 향촌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또한 향촌민은 用藥의 方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향촌의 실정에 맞지 않았다.

이에 金正國은 己卯土禍에 연루되어 罷官된 후 高陽郡 芒洞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의료실태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父老들의 경험적 효과를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방의 실정에 맞는 의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에 향촌민의 이해와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널리 이용될 목적으로 「村家救急方」을 편찬하였다.

8) 夫醫方之作，積案盈箱，無非爲人除疾患，而救橫命也，則良醫雖遠考方書，亦可得以救其萬一。余負累居村，患無已病之醫，多求得醫方藥書，遇有病人來問，則認其症，閱其書，得其藥，喜其藥病之相適。且命之先後，思之則曰湯曰散曰元曰丹，醫局所劑，有非窮村之民所能得者。因廢書而嘆曰，庖丁之手無刃，則不如得一棒而斃，養由之手無弓，則不如操短兵而接，方書之劑無材，則不如得常材以救。於是，盡棄全方之書，只取其民間所易得者，兼採其出於父老之聞見而有效者，編集一卷，曰村家救急方。置諸几案之上，村居數十年之間，因病投藥，不出塵里之外，有求必得，頗皆有效，所活亦多，唯恐是編之不得廣布民間也。余於戊戌春，被召還朝，同年夏，承湖南之命，入界，信宿而到南原，首以是編付通判，使之更其布。

한국한의학회연구원, 「국역 의방합부 I」(대전: 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07), 3-4.

9) 김효연, “朝鮮朝 醫書에 관한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15.

3. 인용문헌 분석

한 저작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독창성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망라성과 수준은 물론 저자의 학문적 경향을 엿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신빙성과 권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는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을 대상으로 「村家救急方」의 일반적인 병증에 따른 인용문헌을 비교분석하여 그 두 이본간의 관계를 살펴 본 후, 조선중기의 대표적 전문의서인 「東醫寶鑑」의 인용문헌과 비교하여 「村家救急方」이 갖는 민간의서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3.1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 「村家救急方」은 일반적으로 병증에 따른 인용문헌을 제시한 뒤 증상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약방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¹⁰⁾ 먼저, 「村家救急方」의 주요 인용문헌을 분석하기에 앞서 「村家救急方」에 게재되어 있는 병증을 살펴보면, 「村家救急方」은 大方科, 婦人門, 小兒門으로 三大分되어 각 부분에 해당되는 病症을 싣고, 병증 다음에 ‘一’, ‘二’, ‘三’과 같이 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어 구분하였다. 三木榮 所藏本은 大方科 78개 병증, 婦人門 24개 병증, 小兒門 30개 병증으로 총 132여종의 병증이 수록되어 있다. 한독본은 앞의 일부가 落帙되어 大方科 부분과 婦人門 일부가 보이지 않고, 婦人門 41개 병증, 小兒門 55개 병증으로 총 96개의 병증을 싣고 있다.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의 병증에 따른 항목을 기재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三木榮 所藏本의 병증에 따른 132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0) 한독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妊娠尿血 六」千金方治婦人尿血黍穰莖燒灰細研酒服方寸七'과 같이 인용서목을 제시한뒤 그에 따른 증상과 治方을 적고 있다.

첫째 大方科는 中風, 歷節風, 傷寒, 陰陽易, 咳逆, 中暑, 腰痛, 瘧疾, 噎塞, 諸汗, 諸疸, 諸淋, 諸疝, 陰痒腫痛, 妬精瘡, 血病, 脾胃, 嘔吐, 浮腫, 脹滿, 積聚, 腹痛, 心痛, 消渴, 健忘, 咳嗽, 癲癩發狂, 中惡, 大小便, 夢泄, 眼疾, 眵目, 雀目, 頭痛, 面痛, 耳病, 鼻病, 齒病, 齧齒, 咽喉, 口臭, 狐臭, 毛髮, 癩風, 白駁風, 酒病, 卒死, 蠱毒, 痢疾, 脫肛, 痔疾, 時疫, 癰疽, 丹毒, 疔腫, 瘰癧, 癬瘡, 癩疹, 附骨疽, 手足皸裂, 打撲傷, 箭鏃竹木刺入肉, 金瘡, 骨鯁, 湯火傷, 便毒, 漆瘡, 凍瘡, 浸淫瘡, 癩瘡, 灸瘡腫, 人面瘡, 白癩, 風痞癰, 諸蟲傷, 寸白蟲, 諸獸傷, 諸中毒 등 78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婦人門은 胎動不安, 妊娠腹痛, 胎死腹中, 妊娠不語, 妊娠大小便不通, 妊娠尿血, 轉胞不得小便, 妊娠瘧疾, 兒在母腹中哭, 難產, 胞衣不下, 產後血暈, 產後惡露不止, 產後玉門不閉, 小戶嫁痛, 陰挺下脫, 陰蝕瘡, 陰痒痛, 陰腫痛, 月水不通, 赤白帶下, 乳癰, 妊娠食忌, 藥忌 등 24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小兒門은 中風, 驚癇, 驚啼, 夜啼, 吐乳, 臍風, 撮口, 重舌, 口瘡, 噎逆, 眼疾, 耳病, 頭瘡, 顛不合, 髮不生, 齒不生, 腹痛, 尿血, 痢疾, 泄瀉, 脫肛, 陰腫, 無辜疔疾, 瘡疹, 溺水, 自縊, 失欠領車蹉候, 破傷風, 怪疾, 肉毒 등 30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독본의 병증에 따른 96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婦人門은 妊娠大小便不通, 妊娠尿血, 轉胞不得小便, 妊娠瘧疾, 兒在母腹中哭, 產後痢, 難產, 胞衣不下, 產後血暈, 產後惡露不止, 產後腸出, 產後血不下, 產後泄瀉, 產後腹脹痛, 產後蓐勞, 乳汁不下, 產後玉門不閉, 小戶婦痛, 陰挺下脫, 陰蝕瘡, 陰痒痛, 陰腫痛, 月水不通, 血崩, 赤白帶下, 六十二種風, 血風攻腦, 臟燥欲哭, 自哭自笑, 乳癰, 吹乳, 乳硬, 妳頭裂, 血塊, 癩塊, 孕婦咳嗽, 胎漏, 觸胎下血, 妊娠食忌, 藥忌, 產後雜證 등 41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小兒門은 中風, 嬰兒初生, 生下卽死, 寸白虫, 驚癇, 驚啼, 夜啼, 吐乳, 臍風, 撮口, 重舌, 口瘡, 耳鼻邊爛, 瘰瘡, 噎逆, 眼疾, 耳病, 頭瘡, 聾瘡, 眉煉, 火丹, 痘瘡出不透, 痘瘡陷入, 痘瘡黑陷, 痘瘡入眼, 痘瘡爛, 痘瘡爬搔, 痘瘡欲發,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연구

豆瘡後瘡, 豆瘡癩, 豆瘡疔蝕, 客忤, 腦後有核, 久患疔熱, 疔後虛熱, 熱毒遊毒, 顛不合, 頭骨縫門, 髮不生, 齒不生, 頭上軟癭, 腹痛, 尿血, 痢疾, 脫肛, 遺尿, 陰股間瘡, 陰囊腫, 疝氣無辜疔疾, 陰腫, 急慢驚風, 瘡疹, 凡小兒痘瘡方 등 55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村家救急方」은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에 동일하게 병증에 대한 인용서를 제시하고 뒤에 증상과 그에 따른 治方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되는 증상을 보는 즉시 그에 따른 治方을 참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원문을 볼 수 있었던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을 대상으로 인용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병증을 기준으로 그 인용문헌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三木榮 所藏本에만 보이는 병증에 대한 인용문헌과 한독본에만 보이는 병증에 대한 인용문헌을 살펴보는 순으로 하겠다.

<표 1>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I (三木榮 所藏本·한독본에 공통 기재된 병증)

대분류	병증	인용서목
婦人門	妊娠尿血	千金方, 婦人良方
婦人門	轉胞不得小便	聖惠方
婦人門	妊娠瘡疾	產寶方
婦人門	兒在母腹中哭	得効方
婦人門	難產	子母秘錄, 千金方, 聖惠方, 本朝經驗方
婦人門	胞衣不下	聖惠方, 三和子, 肘後方, 本草, 梅師方
婦人門	產後血暈	濟生方, 聖濟總錄, 子母秘錄, 崔氏方
婦人門	產後惡露不止	神効方, 聖濟總錄
婦人門	產後玉門不閉	梅師方, 胎產救急方, 千金方, 聖惠方, 傳心方
婦人門	小戶嫁痛	千金方, 千金翼, 集成方
婦人門	陰挺下脫	千金方, 子母秘錄
婦人門	陰蝕瘡	聖惠方, 得効方
婦人門	陰痒痛	肘後方, 聖惠方, 外臺秘要
婦人門	陰腫痛	三和子方, 胎產救急方, 子母秘錄, 藥性論
婦人門	月水不通	海上集
婦人門	赤白帶下	聖惠方

婦人門	乳癰	婦人良方, 聖惠方, 千金方
婦人門	妊娠食忌	-
婦人門	藥忌	-
小兒門	中風	聖惠方
小兒門	驚癇	斗門方, 聖惠方
小兒門	驚啼	子母秘錄, 聖濟總錄, 本草, 千金方
小兒門	夜啼	子母秘錄, 聖惠方, 經驗方, 醫林方
小兒門	吐乳	聖惠方
小兒門	臍風	聖惠方, 三和子
小兒門	撮口	小兒官氣
小兒門	重舌	千金方, 經驗方
小兒門	口瘡	姚氏方, 小兒官氣, 千金方, 聖惠方
小兒門	噦逆	聖惠方, 古今錄驗
小兒門	眼疾	聖惠方
小兒門	耳病	聖惠方, 千金方, 肘後方
小兒門	頭瘡	聖惠方, 子母秘錄, 集成方
小兒門	顛不合	聖惠方, 明堂經
小兒門	髮不生	聖惠方, 肘後方, 千金方
小兒門	齒不生	聖惠方
小兒門	腹痛	千金方, 子母秘錄
小兒門	尿血	聖惠方, 外臺秘要
小兒門	痢疾	聖惠方, 食醫心鑑, 得効方
小兒門	脫肛	金匱方, 得効方, 衛生寶鑑
小兒門	陰腫	聖惠方, 朱氏集驗
小兒門	無辜疳疾	經驗方, 千金方, 奇効良方
小兒門	瘡疹	本朝經驗方, 醫林方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에 공통으로 보이는 병증에 대한 인용문헌은 「千金方」, 「婦人良方」, 「聖惠方」, 「產寶方」, 「得効方」, 「子母秘錄」, 「本朝經驗方」, 「三和子」, 「肘後方」, 「本草」, 「梅師方」, 「濟生方」, 「聖濟總錄」, 「崔氏方」, 「神効方」, 「胎產救急方」, 「傳心方」, 「千金翼」, 「集成方」, 「藥性論」, 「斗門方」, 「經驗方」, 「醫林方」, 「小兒官氣」, 「姚氏方」, 「古今錄驗」, 「明堂經」, 「外臺秘要」, 「食醫心鑑」, 「衛生寶鑑」, 「朱氏集驗」, 「金匱方」, 「奇効良方」, 「海上集」 등 총 34여종의 여러 의방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다음으로, 三木榮 所藏本에만 기재되어 있는 병증과 그 인용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II (三木榮 所藏本에만 보이는 병증)

대분류	병증	인용서목
大方科	中風	外臺秘要, 聖惠方, 千金方, 衛生易簡方, 醫林方
大方科	歷節風	千金方, 聖惠方, 經驗方
大方科	傷寒	聖惠方, 肘後方, 聖濟總錄
大方科	陰陽易	傷寒類要, 梅師方, 外臺秘要, 扁鵲, 本草, 本朝方
大方科	咳逆	奇効良方
大方科	中暑	外臺秘要, 千金方, 范江方, 孫真人方
大方科	腰痛	肘後方, 外臺秘要
大方科	瘡疾	外臺秘要, 聖濟總錄, 聖惠方, 本朝經驗方
大方科	噎塞	居家必用方, 聖惠方, 食醫心鑑, 千金方
大方科	諸汗	經驗方, 衛生寶鑑, 御藥院方
大方科	諸疽	傷寒類要, 百一方, 聖惠方, 本朝經驗方
大方科	諸淋	食醫心鑑, 葛氏方, 集驗方, 聖惠方, 經驗方
大方科	諸疔	食醫心鑑, 永類鈴方
大方科	陰痒腫痛	集驗方, 外臺秘要, 梅師方, 奇効良方, 經驗方
大方科	妬精瘡	直指方, 奇効良方
大方科	血病	梅師方, 濟衆方, 廣利方, 奇効良方
大方科	脾胃	食醫心鑑, 居家必用
大方科	嘔吐	食醫心鑑, 奇効良方
大方科	浮腫	聖惠方, 外臺秘要, 食醫心鑑, 兵部手集, 神農圖經
大方科	脹滿	醫林方
大方科	積聚	聖惠方, 千金方
大方科	腹痛	濟衆方, 楊氏方, 肘後方, 衛生寶鑑
大方科	心痛	經驗方, 十全方, 外臺秘要, 楊氏方, 拾遺序, 聖惠方, 肘後方
大方科	消渴	食醫心鑑, 楊氏方, 事林廣記, 奇効良方, 醫林方
大方科	健忘	聖惠方, 千金方
大方科	咳嗽	千金方, 孟詵, 古方, 本朝經驗方
大方科	癲癩發狂	千金方, 百一選方, 日華子
大方科	中惡	肘後方, 千金方, 經驗方, 奇効良方
大方科	大小便	濟衆方, 百一選方, 本朝經驗方
大方科	夢泄	陳藏器, 外臺秘要, 衛生寶鑑

大方科	眼疾	梅師方, 外臺秘要, 聖惠方, 本草, 醫林方
大方科	昧目	經驗方, 千金方, 得效方, 鄉藥集成方
大方科	雀目	聖惠方, 千金方, 衛生寶鑑
大方科	頭痛	外臺秘要, 兵部手集
大方科	面病	斗門方, 易簡方, 聖惠方, 肘後方, 千金方, 瑣碎錄
大方科	耳病	百要方, 經驗方, 醫林方, 聖惠方
大方科	鼻病	千金方, 聖惠方
大方科	齒病	千金方, 外臺秘要, 道藏經, 南陽經, 經驗方
大方科	齩齒	聖惠方
大方科	咽喉	食醫心鑑, 外臺秘要, 千金方, 聖惠方, 張仲景
大方科	口臭	千金方
大方科	狐臭	經驗方, 千金方, 聖惠方
大方科	毛髮	千金方, 千金翼, 聖惠方, 梅師方
大方科	癩風	千金方, 本草, 本朝經驗方
大方科	白駁風	外臺秘要, 集驗方, 聖惠方
大方科	酒病	聖惠方, 袖琬方
大方科	卒死	肘後方, 外臺秘要, 南嶽婦人
大方科	蟲毒	本朝經驗方, 三回方
大方科	痢疾	聖濟總錄, 肘後方, 三和子, 食醫心鑑
大方科	脫肛	千金方, 集成方, 金匱方, 本草
大方科	痔疾	經驗方, 集驗方, 食醫心鑑
大方科	時疫	外臺秘要, 肘後方, 神仙教子法, 千金方, 本草
大方科	癰疽	千金方, 千金翼, 外臺秘要, 經驗方
大方科	丹毒	聖惠方, 兵部手集, 子母秘錄
大方科	丁腫	肘後方, 千金翼, 經驗方
大方科	瘰癧	外臺秘要, 百一方, 子母秘錄, 經驗方
大方科	癬瘡	聖惠方, 外臺秘要, 集成方, 醫林方
大方科	癩疹	千金方, 外臺秘要, 直指方
大方科	附骨疽	劉涓子, 三和子, 經驗方
大方科	手足皸裂	奇効良方, 千金翼, 神效名方, 經驗方
大方科	打撲傷	肘後方, 千金方, 本朝經驗方, 本草
大方科	箭簇竹木刺入肉	神仙方, 梅師方, 兵部手集, 孟詵, 聖惠方
大方科	金瘡	梅師方, 斗門方, 孫真人, 百一選方
大方科	骨鯁	經驗方
大方科	湯火傷	聖惠方, 肘後方, 經驗方, 本草, 子母秘錄
大方科	便毒	經驗方, 本朝經驗方

大方科	漆瘡	經驗方, 集成方, 食醫心鑑
大方科	凍瘡	衛生寶鑑, 聖惠方
大方科	浸淫瘡	肘後方, 集成方, 千金翼
大方科	癩瘡	聖惠方, 奇効良方
大方科	灸瘡腫	千金方, 千金翼, 三和子, 聖惠方
大方科	人面瘡	-
大方科	白癩	-
大方科	風痞癩	-
大方科	諸虫傷	肘後方, 日華子, 孫真人, 經驗方, 外臺秘要, 千金方, 錢相公, 廣利方, 梅師方, 奇効良方, 聖惠方
大方科	寸白虫	經驗方, 奇効良方
大方科	諸獸傷	經驗方, 肘後方, 聖惠方, 梅師方, 葛氏方, 千金方, 外臺秘要, 本朝經驗方
大方科	諸中毒	聖惠方, 梅師方, 百一選方, 葛氏方, 金匱方, 肘後方, 奇効良方, 千金方
婦人門	胎動不安	聖惠方, 子母秘錄,
婦人門	妊娠腹痛	聖濟總錄, 婦人良方
婦人門	胎死腹中	十金方, 子母秘錄, 三和子方
婦人門	妊娠不語	婦人良方
小兒門	泄瀉	得効方, 食醫心鑑
小兒門	溺水	經驗方
小兒門	自縊	經驗方
小兒門	失欠頷車蹉候	經驗方
小兒門	破傷風	袖琬方, 奇効良方, 直指方, 肘後方
小兒門	怪疾	-
小兒門	肉毒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木榮 所藏本에만 보이는 병증에 대한 인용문헌은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에 공통으로 보이는 인용서를 제외하고, 「衛生易簡方」, 「傷寒類要」, 「扁鵲」, 「范江方」, 「孫真人方」, 「居家必用方」, 「御藥院方」, 「百一方」, 「葛氏方」, 「永類鈴方」, 「直指方」, 「濟衆方」, 「廣利方」, 「兵部手集」, 「神農圖經」, 「楊氏方」, 「十全方」, 「拾遺序」, 「事林廣記」, 「孟詵」, 「古方」, 「日華子」, 「陳藏器」, 「鄉藥集成方」, 「瑣碎錄」, 「百要方」, 「道藏經」, 「南陽經」, 「張仲景」, 「袖琬方」, 「南嶽婦人」, 「三回方」, 「神仙教子法」, 「劉涓子」, 「神效名方」, 「錢相公」, 「集驗方」 등 총 37여종의 여러 의방서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인용된 의방서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독본이 앞의 大方科 부분과 婦人門

일부가 落帙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독본에만 기재되어 있는 병증은 婦人門의 產後痢, 產後腸出, 產後血不下, 產後泄瀉, 產後腹脹痛, 產後蓐勞, 乳汁不下, 血崩, 六十二種風, 血風攻腦, 臟燥欲哭, 自哭自笑, 吹乳, 乳硬, 妳頭裂, 血塊, 癍塊, 孕婦咳嗽, 胎漏, 觸胎下血, 產後雜證 등 21개 병증과 小兒門의 嬰兒初生, 生下卽死, 生下氣絕, 寸白虫, 耳鼻邊爛, 癩瘡, �瘡, 眉煉, 火丹, 痘瘡出不透, 痘瘡陷入, 痘瘡黑陷, 豆瘡入眼, 豆瘡爛, 豆瘡爬搔, 豆瘡欲發, 豆瘡後瘡, 豆瘡痂, 豆瘡疳蝕, 客忤, 腦後有核, 久患疳熱, 疳後虛熱, 熱毒遊毒, 頭骨縫門, 頭上軟癭, 遺尿, 陰股間瘡, 陰囊腫, 疝氣, 急慢驚風, 凡小兒痘瘡方 등 32개 병증으로, 이들 병증에 대한 처방은 金正國의 의학적 지식과 父老들의 경험을 수집하여 옮겨 적은 聞見方이다.

3.1.1 인용문헌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村家救急方」은 모두 71여종의 문헌이 인용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같은 책을 다르게 표기했으나 같은 책인 것¹¹⁾과 문헌을 직접 참고하지 않고 전하는 말을 인용한 것¹²⁾과 당대 유명한 의학자의 이름을 제시한 부분¹³⁾도 있다.

이들 인용문헌을 우리나라 의서와 중국 의서로 나누어보면, 우리나라 의서는 「三和子鄉藥方」, 「本朝經驗方」, 「鄉藥集成方」 등 3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국의 의서이다.

-
- 11) 「三和子」·「三和子方」, 「百一方」·「百一選方」과 같은 경우, 동일한 의서인데 표현을 약간 달리한 것임.
 - 12) 「姚氏方」, 「楊氏方」과 같은 경우 전해지는 내역이 없는데,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던 경험방서로 보여진다.
 - 13) “扁鵲”은 기원전 5C 전후의 의학자, “孟詵”과 “陳藏器”는 중국 唐 나라때의 의학자다.

3.1.1.1 우리나라 의서

「村家救急方」에 인용된 우리나라 의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三和子鄉藥方」

「三和子鄉藥方」은 고려 후기에 실용되던 의서로 조선 태조 7년(1398)에 「鄉藥濟生集成方」이라는 의학서를 편찬할 때 이 책을 원본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鄉藥集成方」을 편찬할 때도 이용하였다. 「三和子鄉藥方」은 현재 완질로 전하지 않아 내용의 전모를 알 수 없지만 “여러가지 약을 모아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것이 한 가지로 그 병에 맞게 하는 것만 못하는데, 다만 병을 제대로 알고 한 가지 약을 바로 쓰기가 어렵게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멀리 떨어져서 이 땅에서 생산하지 않는 藥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몹시 걱정하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풍속이 흔히 한 가지 풀을 가지고 한 가지 병을 고치는데 특효를 본다.”라는 「鄉藥濟生集成方」의 서문을 통해 그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② 「本朝經驗方」

「本朝經驗方」은 조선시대 경험방으로 연대, 저자 미상이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方書로, 현재 망실되어 전해져 있지 않으나 책의 이름이 「村家救急方」 이외에도 「鄉藥集成方」, 「救急易解方」 및 「醫林撮要」의 引用書目に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쓰임이 많았음을 알수 있다. 저작 시기는 대략 太宗 때부터 世宗 때이며 내용은 醫師로서 경험하고 치료에 쓴 方을 모아 만든 임상醫書로 알려져 있다.¹⁵⁾

③ 「鄉藥集成方」

「鄉藥集成方」은 활자본 85권 30책으로, 「村家救急方」에서 인용한 우리나라

14) 김호, “「東醫寶鑑」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醫學論”(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4.

김신근. 앞의 책. 30.

15) 김신근. 앞의 책. 34.

의서 중 유일한 현전본이다. 이 책은 1431년(세종 13)에 權採·兪孝通·盧重禮·朴允德 등이 재래의 여러 의서를 참고하여 편찬, 1433년에 간행한 것으로 1488년(성종 19)에 부분적으로 된 한글 번역본이 간행되었고 다시 1633년(인조 11)에 重刊되었다. 수록 내용은 病症 959종·藥方文 1만 706종·鍼灸法 1,416종·鄉藥本草·炮製法 등으로 되어 있다. 모든 질병을 57개의 大綱門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것을 959개의 小目으로 나누어 각 강문과 조목에 해당되는 病論과 方藥을 出典과 함께 일일이 論舉하고 있다. 그 밖에 책머리에는 「資生經」에서 가려 뽑은 침구목록을, 책 끝에는 「鄉藥本草」의 <總論>과 <各論>을 각각 첨부하고 있는데, 특히 총론 중에는 “諸品藥石炮製法”이 실려 있다. 57개의 대강목의 명칭을 보면, 근세 임상의학의 各科가 총망라되어 있지만 그 분류법이 전문 과별로 되어 있지 않고 대개 병증을 중심으로 한 病門과 인체의 부위를 중심으로 한 科門이 혼합되어 있다. 각 병문의 아래에는 그 병증에 필요한 조목을 낱낱이 종류별로 나누어 해당되는 病論과 治方을 빠짐없이 망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출전도 명시되어 있다. 이 출전 가운데는 漢·唐·宋·元 등의 醫方書와 고려 후기 이후에 발전되어 온 한국 향약방서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¹⁶⁾

이렇듯 「村家救急方」은 이들 의서의 단방에 기초하여 민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향약재 처방을 하였다. 또한 「村家救急方」은 중국의 醫方書를 독자적으로 수용하고 인용하여, 간단한 약재로 처방할 수 있고 민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우리 실정에 맞게 발췌하여 모아 놓았다.

3.1.1.2 중국의서

「村家救急方」에 인용된 중국 의서를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ol.24. 675-676.

<표 3> 「村家救急方」에 인용된 중국의서

書名	原書名	간행연대	저자	비고 ¹⁷⁾
劉涓子	劉涓子鬼遺方	晉	-	현존하는 外科醫書로 가장 오래된 저작. 金瘡, 癰疽, 瘡癤 및 기타 피부병에 대한 치료 경험들과 아울러 內外治法에 쓰이는 140여 종의 處方 신고 있음.
張仲景	張仲景方論	晉	王叔和	醫書. 전36권.
肘後方	肘後救卒方	晉	葛洪	전3권 86篇. 葛洪의 저서 「金藥方」(전100권) 중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救急, 常見, 簡便, 實用의 부분을 정리.
范江方	-	東晉	范江	-
梅師方	梅師集驗方	隋	梅深師	권수 미상. 「古今醫統大全」에서는 “瘰癧를 잘 치료했으며, 雜證을 치료할 때마다 번번이 單方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효과가 매우 빨랐다. 이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전하여 「梅師方」이라고 하였다.”라고 전해짐.
古今錄驗	古今錄驗方	唐	甄立言	醫書.
明堂經	-	唐	甄權	-
孫真人方	孫真人海上方	唐	孫思邈	-
食醫心鑑	-	唐	昝段	食物 약품을 위주로 조제한 藥方을 써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外臺秘要	-	唐	王燾	전40권. 1,104門으로 나누어져 醫方 680여 수 신고 있음.
千金方	千金要方	唐	孫思邈	중국에서 처음으로 완비된 最古의 의학전서. 전30권. 의학개론부터 시작하여 여성과 질환을 비롯한 각 과 질환의 약물요법과 식이요법 등을 상세히 진술한 다음 鍼灸로 끝을 맺고 있음.
千金翼	千金翼方	唐	孫思邈	醫書. 전30권. 「千金要方」을 보충하여 편집.
聖惠方	太平聖惠方	北宋(992)	諸太醫	북송의 翰林醫官院 王懷隱 등이 민간 효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북송 이전의 각종 방서에서 관련 내용을 집성하여 편찬. 100권
本草	備用本草經史證類	宋	唐慎微	本草學書.
日華子	日華子諸家本草	宋	-	전20권. 本草學書.
胎產救急方	-	宋	李辰拱	方書. 婦人科 관련 전문서적.
集驗方	-	宋	諸太醫	方書.

17) 이들은 다음의 문헌을 통해 정리함.

김기욱등, 「강좌 중국의학사」(고양: 대성의학사, 2006).

Chou,I-mou, 김남일·인창식 공역,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서울: 범인문화사, 2000).

聖濟總錄	政和聖濟總錄	宋(1111~1117)	諸太醫	方書. 전200권. 역대 醫籍을 採輯하고, 민간 驗方 및 의학자의 獻方을 모아 정리 편집한 것.
楊氏方	楊氏家藏秘方	宋(1178)	楊傑	方書. 전20권.
百一方	是齋百一選方	宋(1196)	王璆	男科, 婦科, 小兒科 등 각 과의 처방과 단방이 들어 있으며, 대부분 편자가 견문하여 얻은 것이나 관련 문헌의 경험방을 집록한 것. 전20권.
婦人良方	婦人大全良方	宋(1237)	陳自明	婦人科 전문의서. 전24권. 8門 260여 證의 부인과 질환 기재.
濟生方	嚴氏濟生方	宋(1253)	嚴用和	方書. 전10권. 내용은 中風, 中寒, 中濕 등 內科, 外科, 婦人科의 질병 79편이 들어 있고, 처방은 대부분 저자의 試用을 거친 실용적인 것임.
直指方	仁齋直指方	宋(1264)	楊士瀛	醫書. 전26권. 조선전기에 醫家의 근본으로 여겨질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世祖 때에는 正·종8품에 해당하는 醫員을 取才할 때 講하는 의학 서적으로 이용.
朱氏集驗	類編朱氏集驗醫方	宋(1266)	朱佐	方書
永類鈴方	-	元	李仲南	-
衛生寶鑑	-	元	羅天益	전24권의 종합의서.
御藥院方	-	元(1338)	許圖楨	어약원에서 제정한 처방을 수록한 醫書.
得効方	世醫得効方	元(1345)	危亦林	方書. 전19권. 편자가 그의 5세의 家傳醫方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한 經驗方.
衛生易簡方	胡濙	明(1410)	胡濙	方書

「村家救急方」에 인용된 중국의 의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外臺秘要」, 「千金要方」, 「太平聖惠方」, 「政和聖濟總錄」 등 주로 중국 唐宋시대에 널리 이용되었던 각종 醫方書이다. 이외에도 「胎產救急方」, 「婦人良方」과 같은 부인과 전문의서와 「本草經史證類」, 「日華子諸家本草」과 같은 本草書도 인용하였다.

3.2 「東醫寶鑑」과의 인용문헌 비교

조선의 대표적인 종합의서인 「東醫寶鑑」은 선조 29년(1596) 許浚이 왕명으로 鄭碯·楊禮壽·鄭禮男 등과 함께 편찬을 시작하였다가 이듬해 壬辰倭亂(1597)으로 중단, 그 후 허준이 단독으로 편찬하여 광해군 2년(1610)에 편찬을 완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醫書의 하나로서 광해군 5년(1613) 內醫院에서 開刊하였다.

이 책은 「목록」 2권, 「내경편」 4권, 「외형편」 1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구법」 1권 등 모두 25권 25책으로 구성되었으며, 引用한 書籍은 國內의 醫書와 中國의 古代로부터 明代 醫書까지 모두 86여종이나 되는 방대한 것이었고, 편찬시기도 전후 14년이나 걸린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의서의 百科全書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醫員의 育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國內은 물론 中國과 日本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현재까지 醫學敎育과 질병치료에 활용되고 있다.¹⁸⁾

「村家救急方」의 저자인 金正國과 「東醫寶鑑」의 저자인 許浚은 5촌 堂叔관계이며, 許浚을 內의원에 遷거하였던 柳希春은 金正國의 형인 金安國의 文人으로 許浚과는 各별한 關係에 있다. 또한 柳希春의 「眉巖日記」 1571년(辛未) 3월 24일 일기에는 「村家救急方」 인출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許浚의 醫學知識은 5촌 堂叔인 金正國의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은 1538년에 간행된 「村家救急方」보다 75년 뒤인 1613년에 간행되지만, 許浚의 醫學思想이 5촌 堂叔인 金正國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과의 인용서 비교를 통해 「村家救急方」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東醫寶鑑」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에 기재되어 있는 病證 항목을 조사하고,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病證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인용서를 인용 했으며, 같은 인용서를 인용했다면 인용서 안의 어떤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한독본 「村家救急方」은 앞의 일부가 落帙되어 大方科 부분은 알 수 없기에 먼저, 三木榮 所藏本の 大方科 부분과 「東醫寶鑑」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病證과 그에 따른 인용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본에 공통으로 수록되어 있는 婦人門, 小兒門의 病證과 「東醫寶鑑」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病證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용서를 살펴보았다.

18) 허준·동의보감 국역위원회 옮김,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표 4> 三木榮 所藏本「村家救急方」大方科 부분과 「東醫寶鑑」의 인용서목 비교

書名 病症	村家救急方	東醫寶鑑
中風	外臺秘要, 聖惠方, 千金方, 衛生易簡方, 醫林方	綱目, 丹心, 醫鑑, 直指, 俗方, 資生, 回春, 類聚, 得效, 正傳, 衍義, 入門, 易老, 千金
歷節風	千金方, 聖惠方, 經驗方	東垣, 綱目, 丹心, 方廣
傷寒	聖惠方, 肘後方, 聖濟總錄	活人, 得效, 局方, 內經, 東垣, 入門, 正傳, 祇和, 脈經, 脈訣, 回春, 醫鑑, 仲景, 海藏, 本事, 明理, 綱目, 河間, 丹心, 類聚, 靈樞, 明論, 直指, 寶鑑, 外臺, 雲岐, 宣明, 孫兆, 難經
陰陽易	傷寒類要, 梅師方, 外臺秘要, 扁鵲, 本草, 本朝方	入門, 寶鑑, 活人, 外臺
咳逆	奇効良方	丹心, 類聚, 醫鑑
中暑	外臺秘要, 千金方, 范江方, 孫真人方	三因, 四要, 丹心, 得效, 入門
腰痛	肘後方, 外臺秘要	丹心, 東垣, 醫鑑, 入門, 直指, 得效, 綱目
瘧疾	外臺秘要, 聖濟總錄, 聖惠方, 本朝經驗方	內經, 入門, 丹心, 仲景, 東垣, 直指, 綱目, 諸方
諸汗	經驗方, 衛生寶鑑, 御藥院方	仲景, 得效, 東垣, 綱目
諸痘	傷寒類要, 百一方, 聖惠方, 本朝經驗方	入門, 子和, 綱目, 正傳, 仲景, 海藏, 靈樞, 內經, 直指, 脈經, 脈訣, 得效, 諸方, 明理, 醫鑑
諸淋	食醫心鑑, 葛氏方, 集驗方, 聖惠方, 經驗方	仲景, 直指, 醫鑑, 入門, 回春, 綱目, 丹心, 本草, 正傳, 子和
諸疝	食醫心鑑, 永類鈴方	內經, 丹心, 入門, 綱目, 脈訣, 脈經, 子和, 三因, 千金, 直指, 方廣, 本事
妬精瘡	直指方, 奇効良方	入門, 醫鑑, 精義, 直指, 得效, 回春
嘔吐	食醫心鑑, 奇効良方	入門, 綱目, 醫鑑, 仲景
浮腫	聖惠方, 外臺秘要, 食醫心鑑, 兵部手集, 神農圖經	內經, 仲景, 直指, 入門, 正傳, 類聚, 丹心
脹滿	醫林方	靈樞, 丹心, 內經, 東垣, 入門, 醫鑑, 仲景, 脈訣, 正傳, 得效, 回春, 直指, 諸方, 綱目
積聚	聖惠方, 千金方	東垣, 丹心, 永類, 入門, 本事, 諸方, 得效, 內經, 局方, 壽域, 綱目, 直指
腹痛	濟衆方, 楊氏方, 肘後方, 衛生寶鑑	內經, 丹心, 入門, 正傳
心痛	經驗方, 十全方, 外臺秘要, 楊氏方, 拾遺序, 聖惠方, 肘後方	丹心, 綱目, 醫鑑, 入門, 內經, 得效, 靈樞, 正傳, 類聚, 保命
消渴	食醫心鑑, 楊氏方, 事林廣記, 奇効良方, 醫林方	諸方, 丹心, 仲景, 綱目, 本事, 得效, 東垣, 直指, 聖惠, 入門
健忘	聖惠方, 千金方	靈樞, 內經, 丹溪, 醫鑑, 入門, 諸方
咳嗽	千金方, 孟詵, 古方, 本朝經驗方	入門, 醫鑑, 諸方, 東垣, 綱目, 丹心, 正傳, 千金
中惡	肘後方, 千金方, 經驗方, 奇効良方	華陀, 得效, 本草
大小便	濟衆方, 百一選方, 本朝經驗方	丹心, 丹溪, 得效, 入門, 綱目, 回春
眼疾	梅師方, 外臺秘要, 聖惠方, 本草, 醫林方	得效, 回春, 綱目, 直指, 醫鑑, 入門, 東垣, 類聚, 正傳, 丹心, 子和, 醫林, 局方, 本事, 內經, 靈樞, 保命, 河間, 脈訣, 海藏, 資生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연구

雀目	聖惠方, 千金方, 衛生寶鑑	綱目, 得效, 入門, 類聚, 本草, 種杏, 俗方, 正傳
頭痛	外臺秘要, 兵部手集	靈樞, 活人, 丹心, 正傳, 子和, 入門, 東垣, 本事, 得效
面病	斗門方, 易簡方, 聖惠方, 肘後方, 千金方, 瑣碎錄	東垣, 入門, 仲景, 綱目, 本事, 內經, 三因, 醫林, 醫鑑, 丹心, 類聚, 編鵠, 華陀, 丹心
耳病	百要方, 經驗方, 醫林方, 聖惠方	靈樞, 入門, 正傳, 直指, 丹心, 醫鑑, 得效, 回春, 三因, 內經, 寶鑑, 綱目, 本草
鼻病	千金方, 聖惠方	正傳, 回春, 丹溪, 入門, 綱目, 種杏, 直指, 醫鑑, 得效
齒病	千金方, 外臺秘要, 道藏經, 南陽經, 經驗方	本草, 直指, 養性, 類聚, 千金, 延壽, 抱朴, 編鵠
齧齒	聖惠方	類聚
咽喉	食醫心鑑, 外臺秘要, 千金方, 聖惠方, 張仲景	醫鑑, 正傳, 類聚, 綱目, 回春, 山居, 直指, 得效, 入門, 丹心, 仲景, 活人, 湯氏
口臭	千金方	入門, 直指, 丹心, 子和
狐臭	經驗方, 千金方, 聖惠方	回春, 丹心, 三因
毛髮	千金方, 千金翼, 聖惠方, 梅師方	入門, 保命, 東垣, 丹心
酒病	聖惠方, 袖疏方	內經, 東垣, 丹心
卒死	肘後方, 外臺秘要, 南嶽婦人	靈樞, 綱目, 正傳, 遺篇, 本草, 諸方
蠱毒	本朝經驗方, 三回方	易簡, 千金, 病源, 三因, 綱目, 得效, 直指, 脈經, 本草, 入門, 瑣言, 夷堅, 俗方
痢疾	聖濟總錄, 肘後方, 三和子, 食醫心鑑	類聚, 入門, 丹心, 玉機, 易老, 綱目, 回春, 仲景, 正傳, 脈經, 丹溪, 河間, 醫鑑, 直指, 靈樞, 省翁, 扁鵲
脫肛	千金方, 集成方, 金匱方, 本草	回春, 直指, 入門
痔疾	經驗方, 集驗方, 食醫心鑑	入門, 正傳, 東垣, 直指, 綱目, 丹心, 醫鑑, 回春
癰疽	千金方, 千金翼, 外臺秘要, 經驗方	內經, 靈樞, 丹心, 入門, 直指, 俗方, 仲景, 三因, 精要, 得效, 東垣, 河間, 綱目, 海藏, 正傳, 脈訣, 精義, 脈經, 醫鑑, 易老, 劉涓子, 活心, 丹溪, 本草, 千金, 山居, 回春, 資生
丹毒	聖惠方, 兵部手集, 子母秘錄	東垣, 丹心
療癰	外臺秘要, 百一方, 子母秘錄, 經驗方	入門, 綱目, 丹心, 直指, 諸方
癬瘡	聖惠方, 外臺秘要, 集成方, 醫林方	入門, 諸方, 丹心
手足皸裂	奇効良方, 千金翼, 神效名方, 經驗方	綱目, 本草, 丹心
金瘡	梅師方, 斗門方, 孫真人, 百一選方	脈經, 得效, 正傳, 諸方, 入門, 丹心
骨鯁	經驗方	三因, 本草, 得效, 丹心, 綱目, 醫鑑, 類聚
湯火傷	聖惠方, 肘後方, 經驗方, 本草, 子母秘錄	入門, 諸方, 丹心
漆瘡	經驗方, 集成方, 食醫心鑑	得效, 入門, 本草, 丹心, 綱目
凍瘡	衛生寶鑑, 聖惠方	諸方, 入門, 得效, 綱目
浸淫瘡	肘後方, 集成方, 千金翼	入門, 仲景, 綱目
癩瘡	聖惠方, 奇効良方	奇効

諸虫傷	肘後方, 日華子, 孫真人, 經驗方, 外臺秘要, 千金方, 錢相公, 廣利方, 梅師方, 奇効良方, 聖惠方	綱目, 丹心, 本草, 入門, 得效
寸白虫	經驗方, 奇効良方	得效
諸獸傷	經驗方, 肘後方, 聖惠方, 梅師方, 葛氏方, 千金方, 外臺秘要, 本朝經驗方	入門, 本草, 綱目, 千金, 十三方, 丹心
諸中毒	聖惠方, 梅師方, 百一選方, 葛氏方, 金匱方, 肘後方, 奇効良方, 千金方	入門, 醫鑑, 諸方, 得效, 種杏, 本草, 綱目, 俗方, 丹心

<표 4>를 통해 ‘中風’, ‘咳嗽’, ‘齒病’, ‘癰疽’, ‘諸獸傷’은 「千金方」, ‘陰陽易’은 「外臺秘要」, ‘妬精瘡’은 「直指方」, ‘眼疾’은 「醫林方」, ‘癩瘡’은 「奇効良方」이 공통으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독본에 수록되어 있는 婦人門, 小兒門의 병증과 「東醫寶鑑」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증 및 그에 따른 인용서를 살펴보았다.

<표 5> 「村家救急方」 婦人門·小兒門 부분과 「東醫寶鑑」의 인용서목 비교

分類	書名	村家救急方	東醫寶鑑
婦人門	妊娠大小便不通	王岳產書, 聖濟總錄	正傳, 丹心
婦人門	兒在母腹中哭	得効方	正傳, 得效, 丹心
婦人門	難產	子母秘錄, 千金方, 聖惠方, 本朝經驗方	丹心, 良方, 正傳, 諸方, 得效, 入門, 回春
婦人門	胞衣不下	聖惠方, 三和子, 肘後方, 本草, 梅師方	良方, 正傳
婦人門	產後血暈	濟生方, 聖濟總錄, 子母秘錄, 崔氏方	良方, 諸方
婦人門	陰挺下脫	千金方, 子母秘錄	丹心, 入門, 良方
婦人門	陰蝕瘡	聖惠方, 得効方	入門, 古今, 精義, 回春
婦人門	乳癰	婦人良方, 聖惠方, 千金方	丹心, 直指, 入門, 正傳, 回春
小兒門	夜啼	子母秘錄, 聖惠方, 經驗方, 醫林方	綱目, 丹心法, 入門
小兒門	臍風	聖惠方, 三和子	入門, 得效
小兒門	撮口	小兒官氣	入門, 直指, 小兒, 丹心, 得效, 入門, 綱目
小兒門	重舌	千金方, 經驗方	古今
小兒門	口瘡	姚氏方, 小兒官氣, 千金方, 聖惠方	古今
小兒門	髮不生	聖惠方, 肘後方, 千金方	得效
小兒門	齒不生	聖惠方	得效, 本草
小兒門	腹痛	千金方, 子母秘錄	湯氏, 錢乙, 正傳
小兒門	痢疾	聖惠方, 食醫心鑑得, 得効方	類聚, 得效
小兒門	無辜疳疾	經驗方, 千金方, 奇効良方	綱目

<표 5>를 통해 婦人門의 ‘兒在母腹中哭’와 小兒門의 ‘痢疾’에서 「得效方」이 공통으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에 공통으로 수록된 병증에 대한 「東醫寶鑑」의 인용서는, 중국 先秦 및 先漢 시대의 醫方書인 「本草」, 「靈樞」, 「難經」 등과 兩晉 및 南北朝 시대의 醫方書인 「脈經」, 「脈訣」 등과 隋唐시대의 醫方書인 「外臺」, 「病源」, 「千金」 등과 宋대의 醫方書인 「本事」, 「活人」, 「三因」, 「聖惠」, 「小兒」, 「直指」 등과 金元시대의 醫方書인 「宣明」, 「明理」, 「東垣」, 「丹心」, 「寶鑑」, 「得效」, 「永類」 등과 明初 시대의 醫方書인 「瑣言」, 「良方」, 「正傳」, 「醫林」, 「綱目」, 「入門」, 「回春」 등을 인용하였다. 이들 인용서는 「正傳」, 「丹心」, 「得效」, 「良方」처럼 서명의 특정부분을 사용하여 밝히고 있는데, 「靈樞」, 「外臺」, 「千金」, 「本事」, 「活人」, 「三因」, 「聖惠」, 「小兒」, 「直指」, 「宣明」, 「明理」, 「東垣」, 「丹心」, 「寶鑑」, 「得效」, 「永類」, 「瑣言」, 「良方」, 「正傳」, 「醫林」, 「綱目」, 「入門」, 「回春」은 「靈樞經」, 「外臺秘要」, 「千金方」, 「本事方」, 「活人書」, 「三因方」, 「聖惠方」, 「小兒方」, 「直指方」, 「宣明論」, 「明理論」, 「東垣十書」, 「丹溪心法」, 「衛生寶鑑」, 「得效方」, 「永類鈴方」, 「傷寒瑣言」, 「經驗良方」, 「婦人良方」, 「醫學正傳」, 「醫林集要」, 「醫學綱目」, 「醫學入門」, 「萬病回春」을 나타낸다.

「東醫寶鑑」은 고대부터 명대초기의 醫論書 및 醫方書들을 총괄하여 의학경전이라 할 수 있는 「內經」과 「靈樞」의 醫論을 신고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또는 저작의 논의를 실은 후 근래의 저작에서 뽑은 내용을 뒤에 실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에 정비된 醫學에 새로이 도입된 明代의 新醫學을 도입하여 허준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인용서의 대부분이 金元시대 및 明初의 의서들이다. 이들 인용서에서 병의 증상에 대한 알맞은 처방을 찾았고, 그것의 적절성 여부는 실질적 효험과 역사적 정통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은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자료를 총괄하여 여러 학설을 모아 절충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원리를 탐구하고 근본을 찾아내어 기본적인 것

을 제기하며 핵심적인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너저분하지 않고 요점을 제시했는데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¹⁹⁾

<표 4>와 <표 5>를 통해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에 동일 병증에 대해 동일한 인용서가 인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이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의 동일병증에 대해 같은 인용서를 인용한 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의 동일병증에 대한 동일 인용서 내용 비교

대분류	病症	引用書	村家救急方	東醫寶鑑
大方科	中風	千金方	○治中風口眼喎斜松葉一斤搗取汁清酒一升浸二宿近火一宿初服半服頭面汗出即愈.	○中風大法. 一曰偏枯. 半身不遂. 二曰風痲. 四肢不舉. 即全身不遂也.
大方科	陰陽易	外臺秘要	○治勞復舉糞頭尖者二十枚豉五合水二并煮半並服.	○有婦人病傷寒. 賊來不能走. 其賊六七八人姦之. 皆得婦人病而死. 此陰陽易也.
大方科	妬精瘡	直指方	○治妬精瘡油髮灰青黛等分爲末入射香小許或摻或津調傳之.	○莖頭三五孔. 小漏瘡. 出微膿. 油髮灰. 津唾調付. 仍米飲調服一錢. 甚妙.
大方科	咳嗽	千金方	○治咳嗽 天南星一箇 大者炮今裂爲末每服一錢生薑三片煎五分溫服空心日午臨臥各一服.	○治乾嗽補肺. 白蜜一斤. 生薑二斤取汁. 先秤銅器. 知斤兩訖. 內蜜復秤知數. 次內薑汁. 以微火煮. 令薑汁盡. 惟蜜斤兩在. 則止. 每服如棗子大. 含化. 日三.
大方科	眼疾	醫林方	○治風醫左患右手中指本節上灸五壯右患左手中指本節上灸五壯.	○眼眇生小泡·細紅點如瘡. 以鍼刺破即差. 故名爲偷鍼. 實解太陽經之結熱也.
大方科	齒病	千金方	○治牙齒動搖生地黃細剉綿囊着齒上啞啞漬齒根日三竝嚙汁十日大佳 ○治齒間出血不止竹茹濃煮鹽少許含之.	○齒病勿食油及乾棗 ○患齒者 忌脂麻油·乾棗及桂心. 若犯之 即重發 ○凡人好患齒病 多由月蝕夜飲食之所致也 所以 日月蝕未平時 特忌飲食.
大方科	癰疽	千金方	○治惡瘡十年不差似癩者燒全蛇脫皮一條爲末和猪脂傳之.	○灸腸癰法. 屈兩肘. 正肘頭銳骨端. 是穴. 灸百壯. 下膿血而安.
大方科	癩瘡	奇效良方	○治癩手滑石粉菉豆粉相和以綿蘸燻之仍膩粉佐之.	○暑月汗漬. 肌生紅粟. 謂之癩子. 宜用玉女英.

19)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214.

大方科	諸獸傷	千金方	○治馬血人瘡月經水傳之最良 ○槐葉棟搗傳之.	○凡春夏初交, 犬多發狂, 但見其尾直下不捲, 口中流涎舌黑者, 即是狂犬, 苦被其傷, 乃九死一生之患, 急用鍼刺去血, 以人小便洗淨, 用胡桃殼半邊, 以人糞填滿, 掩其瘡上, 着艾灸之, 殼焦糞乾則易之, 灸至百壯, 次日又灸百壯, 灸至三五百壯爲佳.
婦人門	兒在母腹中哭	得效方	○令母噉之即止. ○黃連二錢甘草一錢煮汁令母呷之.	○黃連, 濃煎汁, 令母呷服, 亦止.
小兒門	痢疾	得效方	○治小兒噤口痢山藥半生半炒爲末米飲調服.	○小兒痢, 穀道不閉, 黃汁長流者, 不治.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은 한약재를 쉽게 구하기 힘들고 값이 비싸서 일반백성들이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기에 우리나라 들판과 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약재로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고려말 이래 지속되었던 향약 사용의 전통으로, 각종 중국 의방서를 인용하여 경험과 실증 과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村家救急方」은 민간에서 위급상황 시 보고 바로 처방할 수 있는 민간용 救急醫書이고 「東醫寶鑑」은 각종 병에 대한 처방과 함께 증상에 대한 진단법과 예방법을 포괄한 전문가용 綜合醫書이다. 이는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의 동일병증에 대한 동일 인용서의 기술내용을 비교한 <표 6>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에 공통으로 인용된 「千金方」, 「直指方」, 「得效方」 등은 內科·外科·皮膚科·針灸科·產婦人科·小兒科 등 전문분야로 분류되어 병증에 대한 치료법이 부기된 종합 경험방서이다. 이들을 인용함에 있어 「村家救急方」은 병증에 대한 처방 위주로 두세 줄 이내로 간단하게 인용하였고, 「東醫寶鑑」은 병증에 대한 處方과 함께 議論의 근거를 제시하여 그 처방과 의학적 지식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였다.

4. 結 論

이상으로 「村家救急方」의 저자인 思齋 金正國의 생애 및 사상과 「村家救急方」의 주요인용문헌 분석 및 「東醫寶鑑」과의 인용문헌 비교를 통해 살펴본 「村家救急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著者인 金正國(1485-1541)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字는 國弼이요, 號는 思齋 또는 八餘居士이며 본관은 義城이다. 중종 4년(1509)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지냈으나 중종 14년(1519) 己卯土禍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그 후 高陽郡 芒洞에 거주하면서 향촌에서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救急醫書인 「村家救急方」을 저술하였다가 중종 33년(1538) 진라감사로 임명된 후 「村家救急方」1권 1책을 간행하였다. 선조 5년(1572)에는 함흥에서 함경도 관찰사 李友閔에 의해 중간되었다.

「村家救急方」은 三木榮 所藏本, 성암문고본, 한독의약박물관본, 홍재휴본이 전해지며, 이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영인본으로 소장된 三木榮 所藏本과 한독의약박물관본을 대상으로 원문을 살펴보았다. 三木榮 所藏本은 大方科, 婦人門, 小兒門으로 三大分되어 132여종의 病症을 실고 있으며, 한독본은 앞의 일부가 落帙되어 大方科 부분은 보이지 않고, 婦人門의 41여 病症과 小兒門의 55여 病症으로 모두 96개의 病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病症만 나열하는 일반 醫書들과는 달리, 病症 다음에 ‘一’, ‘二’, ‘三’과 같이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村家救急方」은 병증 다음에 인용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증상 및 처방을 제시하여 해당되는 증상을 보는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용서를 통해 저작의 내용 및 수준을 알 수 있는데, 「村家救急方」은 「三和子鄉藥方」, 「本朝經驗方」, 「鄉藥集成方」 등 우리 고유의 醫書와 「千金方」, 「聖惠方」, 「得效方」 등 唐宋시대 중심의 각종 중국 醫方書 71여종과 저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 및 父老들의 경험에서 효험있는 것들을 발췌하여 모아 놓았다. 「千金方」, 「直指

方」, 「得效方」 등의 의방서를 인용함에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방약재 위주로 두 세줄 이내로 간단하게 인용해서 구급상황 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 인용서목을 비교 한 결과 「村家救急方」과 「東醫寶鑑」은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藥材로 이용하고 病症에 대한 治方이 바로 제시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千金方」, 「直指方」, 「得效方」 등의 의방서를 인용함에 있어 「村家救急方」은 병증에 대한 처방 위주로 두세줄 이내로 간단하게 인용하여 민간인들이 쉽게 참고할 수있게 편성한 반면, 「東醫寶鑑」은 병증에 대한 處方과 함께 議論을 인용하여 전문적인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의서들이 巨帙이거나 내용이 어렵고 구성이 매우 방대하여 민간에서는 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처방의 대부분은 唐藥을 사용하였기에 값이 비싼 唐藥을 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그때그때의 임상에 적용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김정국이 민간에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한 처방을 기록한 「村家救急方」은 그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 Chou,I-mou, 김남일 · 인창식 공역.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2000.
- 김기욱 등. 「강좌 중국의학사」. 고양: 대성의학사. 2006.
- 金聖洙. “16世紀 鄉村醫療實態와 士族의 對應 - 「默齋日記」에 나타난 李文樾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1.
- 김신근. 「韓醫藥書考」.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김호. “「東醫寶鑑」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醫學論.”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1.

- 김효연. “朝鮮朝 醫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7.
- 尹甲植. 「朝鮮名人典」. 서울: 文豪社.
- 李魯國. “朝鮮時代 救急醫書의 書誌的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22 (1995). 299-325.
- 李秉然. “思齋 金正國의 改革論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第23·24輯(1999). 763-795.
- 이선아. “양평군 허준의 인맥”. 「허준박물관 개관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서울: 중앙 M&B.
- 한국한의학연구원. 「국역 의방합부 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